



여수 밤바다에 夜好 낭만포차 뜬다 好

‘연간 1300만명 관광객 방문’ 신화를 쓴 여수시가 올해 여수 밤바다의 맛과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낭만포차’를 개장하는 등 전국 대표 관광지의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한 관광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국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여수밤바다를 만끽할 수 있도록 여수시 중화동 해양공원 내 낭만포차를 오는 5월 개장한다.

여수시는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개장 시기를 오는 5월 6일 열리는 거북선축제에 맞추고, 오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수시는 그동안 여수 밤바다를 주제로 여수박람회장과 한화 아쿠아리움, 오동도, 해상케이블카 등 여수해양공원 인근 관광명소와 사업을 통해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는 성공했지만, 밤바다를 즐기며 먹을 수 있는 대표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밤 9시 이후에는 해양공원이 있는 원도심 내 식당 등 상가 대부분이 장사를 마감하는데, 최근 외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기존 연등전 포장마차는 주변 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시, 운영자 17팀 최종 선정...다음달 거북선축제 맞춰 개장 지역 특산물서 스페인 요리까지 메뉴 다양하고 가격 저렴

면서 되레 여수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수범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관광객들이 다양한 맛과 맛을 즐길 수 있는 낭만포차를 본격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5일까지 공고한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신청자 모집에도 169명이 대거 몰리면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수시는 1차와 2차에 걸친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낭만포차 운영자 17팀을 최종 선정했으며 음식 판매 품목도 겹치지 않게 조정했다.

특히 청년층 7팀, 일반시민 5팀, 인근 주민 2팀, 사회적 약자 3팀 등을 배정해 지역 내 소외된 어려운 이웃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여수밤바다 낭만포차에는 지역을 대표 하는 계절음식에서부터 닭발, 삼겹살, 삼

합 등 그동안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은 물론 일본식 나가사키 짬뽕, 스페인 전통요리인 타파스 등 이색 음식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밤바다의 낭만을 즐길 카테일바를 비롯한 거문도 해풍속으로 만든 전, 방풍잎을 이용한 특색있는 먹거리 등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판매점도 들어설 예정이다. 음식 가격도 최소 3000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다양하게 구성해 방문객 모두가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낭만포차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도 도입된다.

포장마차 디자인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여수에서 제작한 거북선 모양으로 제작하고,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안전한 위

생관리를 위해 낭만포차마차 내부에 냉동·냉장시설도 배치된다.

특히 매일 오동도 시민터널 앞 전용 주차공간에서 낭만포차 영업구역인 해양공원 내 구 삼양사 앞까지 1km 구간을 17대의 포장마차가 줄지어 이동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관광객들을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위생점검도 강화된다. 불친절 사례 등 3회 이상 불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시 영업권을 취소하기로 했으며, 식중독 등 위생 관련 주요 민원이 발생할 경우 단 한 차례 적발시에도 바로 퇴출하기로 했다.

낭만포차는 최장 4년간 운영할 수 있으며 1년마다 재심사를 거쳐야만 연장 운영할 수 있다. 또 여수해양공원 내 낭만포차 전용 공간에서만 영업을 가능하며 타인에게 승계할 수 없도록 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여수밤바다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낭만포차 신설로 관광객 유입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여수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체류형 상품 K-Travel Bus 운행 등 여수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본격 시도

여수시가 해외 관광객 유치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K-Travel Bus, 고트치 셔틀, K-셔틀버스를 운행한다.

K-Travel Bus는 한국 방문의 해(2016~2018년)를 맞아 서울 등 수도권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지역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의 우수한 관광 및 체험 콘텐츠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버스는 서울을 출발해 담양 죽녹원, 섬진강 기차마을, 여수엑스포공원, 해상케이블카, 오동도 등을 관광한 뒤 여수에서 하루를 묵는 1박 2일 여정으로 운행한다.

시는 또 일본 FIT(Foreign Independent Tour·개별자유여행)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수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인 해양레일바이크와 오동

도 등을 KTX와 연계한 고트치(현 지)셔틀 상품도 운영한다.

외국인 전용버스상품으로 국내 주요 관광도시를 운행하는 K-셔틀은 여수에서 하룻밤을 머무르는 서울~여수~부산코스과 서울~여수~서울 코스로 나눠 운영된다.

시는 대규모 관광객인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도 집중하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세계 최대의 크루즈 산업박람회 참가해 여수가 가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여수항 크루즈부두를 적극 홍보했으며, MSC CRUISE 사로부터 올 8월과 9월 두 차례 여수항 입항을 약속받기도 했다.

시는 또 최근 중국 산둥성의 여행사 및 언론사를 초청해 여수의 우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팸투어를 추진하는 등 크루즈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제2기 안전문화운동추진 여수시협의회 출범

5개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지역특성에 맞는 과제 발굴

여수시가 안전문화운동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해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안전문화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제2기 안전문화운동추진 여수시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공동 대표를 맡은 주철현 여수시장과 박정일(주)영동이엔지 대표이사를 비롯한 여수교육지원청, 여수경찰서, 여수해양문화재단, 여수소방서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대표 등 회원 37명이 참석했다.

안전문화추진 여수시협의회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 불감증 해소 등 안전문화운동의 실천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분야별 실천과제의 발굴을 위해 기획홍보와 사회·생활·교통·산업안전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보행자 배려 운전하기, 가정과 작업장 안전점검 습관화 등 실천과제를 발굴하는 등 안전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제2기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내실 있는 안전양경비안전서, 여수소방서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대표 등 회원 37명이 참석했다.”

밤바다 즐기는 또다른 방법...2층 투어버스 타고 한바퀴

여수시가 여수밤바다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상품인 도심순환 2층버스에 야간코스를 신규 편성해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오픈된 유럽형 2층버스로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여수만의 ‘only one’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도심순환 2층 투어버스가

1일부터 야간 운행을 시작했다.

오동도와 수산시장, 돌산공원 등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2층버스는 그동안 1일 8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시간 정각에 여수엑스포역을 출발했으나, 주간코스를 1회(오후 6시) 축소하고 오후 7시 30분 출발하는 야간코스를 신규 편성해 여수밤바다를 달리고 있다.

여수시는 2층 버스의 주간 운행 시간을 오전 10시11분에 도착하는 KTX시간에 맞춰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엑스포역을 출발토록 하고 있다. 야간코스는 1일 1회 운행하며 엑스포역을 출발해 오동도~이순신광장~국동역~항단지(계장백만거리)~예울마루~소호역~트경기장~여수시청~여문문화의거리~

고동시장(포차거리)~돌산대교~거북선대교~엑스포역으로 도착한다.

이용요금은 주간권과 야간권으로 구분돼 판매되며, 주·야간 코스별로 성인 5000원, 경로·유공자·군인·장애인·학생 4000원, 미취학 아동은 2000원이다.

주간권은 1일 7회 운행으로 영수증을 제시하면 재탑승이 가능하다. 야간권은 여수시 관광문화홈페이지(www.youstour.kr)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http://art.kjmedia.co.kr>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60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전국대회

2016. 4. 20(수) ~ 5. 26(목)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유치동물원

신청 기간

음악·무용·국악 부문
2016년 4월 6일(수) ~ 4월 12일(화)

미술·작문 부문

2016년 5월 16일(월) ~ 5월 18일(수)

- 참가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일부부문 성인
- 경연기간: 4월 20일(수) ~ 5월 26일(목)
- 참가부문: 음악, 무용, 국악, 미술, 작문(자세한 내용은 대회요강 참조)
- 접수방법: 방문신청: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 / 평 일: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우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16층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우61482)
인터넷신청: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2016년 4월 18일(월) 호남예술제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 시상: 우수학교상·우수지도상
국회위원장(예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예정)
개인-최고상·금상·은상·동상·정려상
단체-최고상·금상·은상·동상
- 문의: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